

제 1 교시

국어 영역

성명

수험 번호

목차

[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1] 셋별 지자 종다리 떴다~ (작자 미상): 12P
- [2] 시비에 개 짓거늘 임만 여겨~ (작자 미상): 12P
- [3] 논밭 갈아 김매고~ (작자 미상): 12P
- [4] 안민가 (충담사): 35P
- [5] 용비어천가 (정인지 외): 35P
- [6] 공무도하가 (백수 광부의 아내): 44P
- [7] 현화가 (견우 노인): 44P
- [8] 수나라 장수 우중문에게 보내는 시 (을지문덕): 44P
- [9] 황계사 (작자 미상): 46P
- [10] 이화에 월백하고~ (이조년): 50P
- [11] 까마귀 눈비 맞아~ (박팽년): 50P
- [12] 이별하던 날에~ (홍서봉): 50P
- [13] 농부의 집에 쓰다 (이덕무): 50P
- [14] 말은 가자 울고~ (작자 미상): 53P
- [15] 임 이별 하울 적에~ (안민영): 53P
- [16] 뒤뜰에 봄이 깊으니~ (작자 미상): 53P
- [17] 청천에 떠서 울고 가는 외기러기~ (작자 미상): 53P
- [18] 조흥시가 (박인로): 55P
- [19] 방물가 (작자 미상): 69P
- [20] 어사옹 (작자 미상): 73P
- [21] 베틀 노래 (작자 미상): 73P
- [22] 영립 (김삿갓): 75P
- [23] 원생원 (김삿갓): 75P
- [24] 청산리 벽계수야~ (황진이): 75P
- [25] 어옹 (설장수): 234P
- [26] 견희요 (윤선도): 239P
- [27] 내가 좋다 하고~ (변계량): 244P
- [28] 사친 (신사임당): 255P

[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샷별 지자 종다리 뿔다 호미 메고 사립 나니
긴 수풀 찬 이슬에 베잠방이* 다 젖는다
아이야 시절이 좋을손 옷이 젖다 관계하랴

- 이재 -

* 베잠방이: 베로 지은 짧은 남자용 홰바지.

[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시비(柴扉)에 개 짓거늘 임만 여겨 나가 보니
임은 아니 오고 명월이 만정(滿庭)한데 일진(一陣) 추풍에
있 지는 소리로다
저 개야 추풍낙엽을 헛되이 짓어 날 속일 줄 어찌오
- 작자 미상 -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논밭 갈아 김매고 베잠방이* 다임 쳐* 신 들메고*
낮 갈아 허리에 차고 도끼 버려 둘러메고 무림산중(茂林
山中) 들어가서 삭정이 마른 썰을 베거니 버히거니 지계에
짚어 지팡이 받쳐 놓고 샘물을 찾아가서 점심 도시락 부시고
곰방대를 툭툭 떨어 앞담배 피어 물고 콧노래에 즐다가
석양이 재 넘어갈 제 어깨를 추키면서 긴 소리 짧은 소리
하며 어이 갈꼬 하더라

- 작자 미상 -

- * 베잠방이: 베로 지은 짧은 남자용 홰바지.
- * 다임 쳐: 대님 매어. 대님은 바짓가랑이의 발회목 부분을 매는 끈.
- * 신 들메고: 신이 벗어지지 않도록 발에 잡아매고.
- * 부시고: 그릇을 씻고. 여기서는 씻듯이 그릇을 다 비웠다는 뜻임.

[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임금은 아버지요
신하는 사랑을 주는 어머니요
백성은 어린아이라고 하신다면
백성이 사랑을 알리라
꾸물거리며 사는 물생
이들을 먹여 다스려서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가리 한다면
나라 안이 유지될 줄 알리라
아아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 한다면
나라 안이 태평할 것이리라

- 충담사, 「안민가」 -

[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불휘 기픈 남긴 브르매 아니 뵈썸 꾀 뎡교 여름 하느니
시미 기픈 브른 ㄹㅁ래 아니 그츨썸 내히 이러 바르래
가느니

<제2장>

천세(千世) 우희 미리 정(定)ᄒᆞᆫ 한수(漢水) 북(北)에
누인개국(累仁開國)ᄒᆞᆫ 복년(卜年)이 ㄹ업스시니*

성신(聖神)이 니스샤도 경천근민(敬天勤民)ᄒᆞᆫ사 더욱
구드시리이다

님금하 아르쇼셔 낙수(洛水)에 산행(山行) 가 이셔 하나빌
미드니잇가*

<제125장>

- 정인지 외, 「용비어천가」 -

- * 복년이 ㄹ업스시니 : 왕조의 운수가 계속됨.
- * 낙수에~미드니잇가 : 하나라 태강왕이 정사를 잘 돌보지 않고 사냥하러 가서 돌아오지 않자 궁나라의 제후 예에 의해 축출당한 고사를 이룸.

[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임아 그 물을 건너지 마오
임은 끝내 그 물을 건너셨네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가신 임을 어찌할꼬

- 백수 광부의 아내, 「공무도하가」 -

[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줏빛 바위 가에
잡고 있는 암소 농게 하시고
나를 아니 부끄러워하시면
꽃을 꺾어 바치오리다

- 견우 노인, 「현화가」 -

[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신기한 계책은 천문을 꿰뚫고
묘한 계산은 지리에 통달했네
싸움에 이겨 공 이미 높으니
죽함을 알고 그만두길 바라겠소
- 을지문덕, 「수나라 장수 우중문에게 보내는 시」 -

[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일조(一朝) 낭군 이별 후에 소식조차 돈절하야*
 자네 일정(一定) 못 오던가 무슨 일로 아니 오더냐
 이 아해야 말 듣소
 황혼 저문 날에 개가 짚어 못 오는가
 이 아해야 말 듣소
 춘수(春水)가 만사택(滿四澤)하니* 물이 깊어 못 오던가
 이 아해야 말 듣소
 하운(夏雲)이 다기봉(多奇峰)하니* 산이 높아 못 오던가
 이 아해야 말 듣소
 한 곳을 들어가니 육관 대사 성진이*는
 석교(石橋)상에서 팔선녀* 데리고 희롱한다
 지어자 좋을시고
 병풍에 그린 황계(황계) 수탉이 두 나래 둥둥 치고
 짜른 목을 길게 빼어 긴 목을 에후리어
 사경(四更) 일점(一點)*에 날 새라고 꼬피요 울거든 오려
 는가
 자네 어이 그리하야 아니 오던고
 너는 죽어 황하수(黃河水) 되고 나는 죽어 도대선(都大船)*
 되어
 밤이나 낮이나 낮이나 밤이나
 바람 불고 물결치는 대로 어하 둥둥실 떠서 노자
 저 달아 보느냐
 임 계신 데 명휘(明輝)를 빌리려문 나도 보게
 이 아해야 말 듣소
 추월(秋月)이 양명휘(揚明輝)*하니 달이 밝아 못 오던가
 어대를 가고서 네 아니 오더냐
 지어자 좋을시고

- 작자 미상, 「황계사」 -

- * 돈절하야: 편지나 소식 따위가 딱 끊어져서.
- * 춘수가 만사택하니: 봄물이 사방 연못에 가득하니.
- * 하운이 다기봉하니: 여름의 구름이 기이한 봉우리마다 많으니.
- * 금풍: 성진은 조선 시대 숙종 때, 김만중이 지은 「구운몽」의 주인공임. 육관 대사는 주인공 성진의 스승인데 이 작품에서는 육관 대사와 성진을 같은 인물로 착각하고 있음.
- * 팔선녀: 김만중의 「구운몽」에 나오는 여덟 명의 여주인공들로, 주인공 성진의 아내가 됨.
- * 사경 일점: 사경은 새벽 1~3시 사이의 시간. '점'은 각 '경(更)'을 5단위로 나눈 시간으로 사경 일점은 새벽 1시 24분 정도에 해당하는 시각임.
- * 도대선: 큰 나룻배.
- * 추월이 양명휘하니: 가을 달은 밝은 빛 드날리니. 이 구절은 앞의 '춘수가 만사택하니', '하운이 다기봉하니'와 함께 중국 육조 시대의 시인인 도연명의 「사시(四時)」에서 차용한 구절임.

[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화(梨花)에 월백(月白)하고 은한(銀漢)이 삼경인 제
일지(一枝) 춘심(春心)을 자규야 알라마는
다정(多情)도 병인 양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 이조년 -

[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까마귀 눈비 맞아 희는 듯 검노매라
야광명월(夜光明月)이 밤인들 어두우랴
임 향한 일편단심(一片丹心)이야 고칠 줄이 있으랴
- 박팽년 -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별하던 날에 피눈물이 난지 만지
압록강 내린 물이 푸른빛이 전혀 없네
배 위의 허여 센 사공이 처음 본다 하더라

- 홍서봉 -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쿵깍지 더미 곁으로 오솔길 나뉘어 있는데
 붉은 아침 햇살 살짝 퍼지자 소 떼들이 흩어지네.
 푸른 하늘은 가을 든 산봉우리를 물들이려는 듯
 맑은 기운에 비 갠 뒤의 구름은 먹음직스럽네.
 갈대에 햇살이 반짝반짝, 기러기가 놀라서 일어나고
 벼 앞에 썩 하는 소리, 붕어가 야단스러운가 보다.
 산 양지바른 곳에 집을 짓고 살고 싶으니
 농부에게 반만이라도 빌려 달라 줄라 봐야지.
 - 이덕무, 「농부의 집에 쓰다」 -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말은 가자 울고
입은 잡고 울고
석양은 재를 넘고 갈 길은 천리로다
저 임아 가는 날 잡지 말고 지는 해를 잡아라
- 작자 미상 -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임 이별 하올 적에 저는 나귀 한치 마시오
가노라 돌아설 제 저는 걸음 아니런들
꽃 아래 눈물 적신 얼굴을 어찌 자세히 보리오
- 안민영 -

[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뒤뜰에 봄이 깊으니 그윽한 심회 둘 데 없어
바람결에 슬피하며 사방을 둘러보니 온갖 꽃 난만한데
머들 위 피꼬리는 쌍쌍이 비껴 날아 울음 울 제 어찌하여
내 귀에는 정이 있게 들리는고
어찌타 가장 귀하다는 사람들이 저 새만도 못하느냐
- 작자 미상 -

[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청천에 떠서 울고 가는 외기리기 날지 말고 내 말 들어
한양성 안에 잠깐 들러 부디 내 말 잊지 말고 웨웨쳐 불러
이르기를 월황혼 겨워 갈 때 적막한 빈방에 던진 듯 홀로
앉아 임 그려 차마 못 살레라 하고 부디 한 말을 전하여 주렴
우리도 임 보러 바삐 가는 길시오매 전할동 말동 하여라
- 작자 미상 -

[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반중(盤中) 조홍(早紅)감이 고와도 보인다
유자(柚子)가 아니라도 품음직* 하다마는
품어 가 반길 이 없을새 그로 설위하나이다

<제1수>

왕상(王祥)*의 이어(鯉魚) 잡고 맹종(孟宗)*의 죽순(竹筍)
꺾어
검던 머리 희도록 노래자(老萊子)*의 옷을 입고
일생(一生)에 양지(養志) 성효(誠孝)를 증자(曾子)같이
하리다

<제2수>

만균(萬鈞)*을 늘여 내어 길게 길게 노를 꼬아
구만리장천(九萬里長天)에 가는 해를 잡아매어
북당(北堂)에 학발쌍친(鶴髮雙親)*을 더디 늙게 하리라

<제3수>

군봉(群鳳)* 모이신 데 외가마귀 들어오니
백옥(白玉) 쌓인 데 돌 하나 같다마는
봉황(鳳凰)도 비조(飛鳥)와 유(類)이시니 되셔 논들 어떠리

<제4수>

- 박인로, 「조홍시가(早紅柿歌)」 -

* 유자 아니라도 품음직: 중국 삼국 시대 때 육적이란 사람이 원술
이 준 굴(유자)을 품속에 품어다가 어머니께 드린 고사를 연상하며
말한 것임.

* 왕상: 중국 진나라 때 사람으로, 병을 앓는 계모가 생선을 먹고
싫다고 하자 한겨울에 옷을 벗고 얼음을 깨었는데 그 얼음 구멍
에서 한 쌍의 잉어가 튀어나오자 그것을 계모에게 갖다주었음.

* 맹종: 중국 오나라 때 사람으로, 죽순을 즐겨 먹는 어머니를
위해 죽순이 나오지 않은 겨울에 대숲으로 가 죽순을 구해 어머니
에게 드렸음.

* 노래자: 중국 초나라 때 사람으로, 70세에 부모님을 위해 때때옷
을 입고 재롱을 피웠음.

* 만균: 균은 무게의 단위로, 만균은 췌덩어리 30만 근에 해당함.

* 학발쌍친: 학의 깃털같이 머리가 하얗게 센 부모.

* 군봉: 무리를 지어 있는 봉황.

[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서방님 정(情) 때고 정 이별한대도 날 버리고 못 가리라.
 금일 송군(送君) 임 가는데 백년 소첩(百年小妾) 나도 가오.
 날 다려 날 다려 날 다려가오. 한양 낭군님 날 다려가오.
 나는 죽네 나는 죽네 임자로 하여 나는 죽네.
 네 무엇을 달라고 하느냐. 네 소원을 다 일러라.
 제일명당 터를 닦아 고대광실(高臺廣室) 높은 집에
 내외 분합(分閤) 물림되며 고불도리* 선자(扇子)추녀 형뎡
 그렇게 지어나 주라.
 네 무엇을 달라고 하느냐. 네 소원을 다 일러라.
 연지분 주라. 면경 석경 주라. 옥지환(玉指環) 금봉차(金鳳
 釵) 화관주(花冠珠) 판머리 칠보(七寶)죽두리 하여나 주라.
 네 무엇을 달라고 하느냐. 네 소원을 다 일러라. 세간치레
 를 하여나 주라.
 용장(龍幟) 봉장(鳳幟)* 컷도리 책상이며 자개 함룡(函籠)
 반단이 삼층
 각계수리 이층 들미장에 원앙금침(鴛鴦衾枕) 잣베개
 셋별 같은 쌍요강 발치 발치 던져나 주라.
 네 무엇을 달라고 하느냐. 네 소원을 다 일러라. 의복 치레
 를 하여나 주라.
 보라 항릉(亢綾) 속저고리 도리볼수 걸저고리 남문대단
 잔술치마
 백방수화주 고장바지 물면주 단속곳에 고양이 속버선
 에 몽고삼승 걸버선에
 자지 상직 수당혜(繡唐鞋)*를 명례궁(明禮宮) 안에 맞추어
 주라.
 네 무엇을 달라고 하느냐. 네 소원을 다 일러라. 노리개
 치레를 하여나 주라.
 은(銀)조로롱 금(金) 조로롱 산호(珊瑚)가지 밀화불수(蜜
 花佛手)*
 밀화장도(蜜花粧刀)* 결칼이며 삼천주 바둑실을 남산더미
 만큼 하여나 주라.
 나는 싫소 나는 싫소 아무것도 나는 싫소.
 고대광실도 나는 싫고 금의옥식(錦衣玉食)도 나는 싫소.
 원앙층층 걷는 말에 마부담(馬負擔)하여 날 다려가오.

- 작자 미상, 「방물가」 -

- * 고불도리: 둥글게 만든 도리(서까래를 받치기 위하여 기둥 위에 건너지르는 나무).
- * 용장 봉장: 용의 모양을 새긴 옷장과 봉황의 모양을 새겨 꾸민 옷장.
- * 수당혜: 수놓은 비단으로 신을 만든 당혜.
- * 밀화불수: 밀화로 부쳐 손같이 만든, 여자의 패물. 대삼노리개의 하나.
- * 밀화장도: 밀화로 꾸민, 주머니 속에 넣거나 옷고름에 늘 차고 다니는 칼집이 있는 작은 칼로 주로 장신구에 사용됨.

[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엄마 엄마 울 엄마요
 나를 낳아 키울 적에
 진자리 마른자리 가려 골라 키워 놓고
 북망산천 가지더니 오늘에도 소식 없네

어떤 사람 팔자 좋아
 고대광실 높은 집에 부귀영화로 지내건마는
 이내 나는 어찌하여 팔공산 깊어지고 낮자리 품 팔아먹고
 산천초목으로 후려잡고 지계로 살러를 가노
 산천은 보니 청산이요 이내 머리는 백발이 되니
 불쌍하고 원통하네

가는 허리 바늘 같은 내 몸에 황소 같은 병이 드니
 부르는 건 울 엄마요
 찾는 거는 냉수로구나

- 작자 미상, 「어사용」 -

[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기심 매러 갈 적에는 갈뽕을 따 가지고
 기심 매고 올 적에는 올뽕을 따 가지고
 삼간방에 누에 놓고 청실홍실 뽑아내서
 강릉 가서 날아다가* 서울 가서 매어다가
 하늘에다 베틀 놓고 구름 속에 이매* 걸어
 함경나무 바디집*에 오리나무 북*에다가
 짜궁짜궁 짜아 내어 가지잎과 묽거워라
 배꽃같이 바래워서 참외같이 올 짓고
 외씨같이 버선 지어 오빠님께 드리고
 겹옷 짓고 솜옷 지어 우리 부모 드리겠네

- 작자 미상, 「베틀 노래」 -

- * 날아다가: (베나 돛자리 등을 짜려고) 틀에 날을 간격이 고르게 벌여 쳐서.
- * 이매: 잉아. 베틀의 날실을 한 칸씩 걸러서 끌어 올리도록 맨 굵은 실
- * 바디집: 바디를 끼우는 데. ‘바디’는 베의 날을 고르며 북의 통로를 만들고 씨실을 쳐서 베를 짜는 구실을 함.
- * 북: 베틀에서, 날실의 틈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씨실을 푸는 기구.

[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정처 없는 내 샷갓은 빈 배와 같은데
 사십 년 평생 내내 쓰고 다녔네
 소 따라 들판으로 가는 목동의 가벼운 차림이요
 백사장의 갈매기와 벗하는 어부의 본색이라네
 술 취하면 벗어 걸고 꽃나무를 바라보고
 흥이 나면 손에 들고 누각에 올라 달구경 하네
 속세 사람 의관은 모두 걸치레이니
 온 하늘에 비바람 가득해도 나는 걱정 없네

- 김삿갓, 「영립」 -

[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해 뜨자 원숭이가 언덕에 나타나고
고양이 지나가자 쥐가 다 죽네
황혼이 되자 모기가 처마에 이르고
밤 되자 벼룩이 자리에서 쏘아 대네

- 김삿갓, 「월생원」 -

[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청산리 벽계수야 수이 감을 자랑 마라
일도창해하면 다시 오기 어려워라
명월이 만공산하니 쉬어 간들 어떠리

- 황진이 -

[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헛된 명예 이루려 조금하게 살지 않고
 평생 동안 수운향*을 좇으며 살아가네
 넓은 호수에 봄은 따사로워 안개가 천리에 퍼지고
 예스런 언덕에 가을은 높아 달이 한 척의 배로구나
 자줏빛 거리*의 흥진엔 꿈자리에도 가지 않으니
 초록빛 도롱이에 샛갓으로 함께 걷고 함께 사라지네
 뱃노래 한 가락이 흥취에 젖었으니
 어찌 인간 세상 옥당 벼슬 부러워하겠는가
 - 설장수, 「어옹」 -

* 수운향: 호숫가나 바닷가에 위치하여 풍경이 그윽한 지방.
 * 자줏빛 거리: 벼슬아치들이 자줏빛 의관을 한 채 다니는 거리로서, 도성의 거리를 뜻함.

[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슬프나 즐거우나 옳다 하나 그르다 하나
내 몽의 할 일만 닦고 닦을 뿐이언정
그 밖의 여남은 일이야 분별할 줄 있으라

<제1수>

내가 한 일 망령된 줄을 나라고 모를쏜가
이 마음 어리석음도 님 위한 탓이로세
다른 사람 아무리 말해도 님이 헤아려 보소서

<제2수>

추성(楸城) 진호루(鎭胡樓) 밖에 울어 예는 저 시냇물아
무엇을 하려고 주야로 흐르느냐
님 향한 내 뜻을 좇아 그칠 때를 모르는도다

<제3수>

피는 길고 길고 물은 멀고 멀고
아버이 그리워하는 뜻은 많고 많고 크고 크고
어디서 외기러기는 울고 울고 가나니

<제4수>

아버이 그리워할 줄을 처음부터 알았건마는
임금 향한 뜻도 하늘이 생기게 했으니
진실로 임금을 잊으면 그것도 불효(不孝)인가 여기노라

<제5수>

- 윤선도, 「견회요」 -

[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가 좋다 하고 남 싫은 일 하지 말며
남이 한다 하여도 의 아니면 좇지 말리
우리는 천성을 지키어 생긴 대로 하리라

- 변계량 -

[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천리 길 고향은 첩첩 산 너머라
 가고픈 마음에 밤마다 꿈속에 찾아가네.
 한송정 가에는 하늘과 물속에 달이 걸려 있고
 경포대 앞에는 한 줄기 바람 불어오네.
 갈매기는 모래톱에 모였다 흩어졌다
 고깃배들은 파도 위로 왔다 갔다.
 언제나 강릉 길을 다시 밟고 가
 색동옷 입고 어머니 곁에서 바느질할까?

- 신사임당, 「사친」 -